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November 8 2024 Vol. 937



'제2회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25일(금) 부터 26일(토)까지 이틀간 나성영락교회에서 "Walking Together in Christ"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k-churchconference.org

2024 발달장애 컨퍼런스, "장애 사역은 선택 아닌 필수"

GBC, 나성영락교회 공동 주최
46개 교회, 300여 명 참석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과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공동주최한 '제2회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25일(금) 부터 26일(토)까지 이틀간 나성영락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Walking Together in Christ)"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교수진, 학부모 대표 등 교회사역자 외에도 전문강연자 22명이 참여했고, 캐나다 및 미 전역 13개주의 46개 교회와 기관, 학교에서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발달장애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행사 첫날인 10월 25일(금), 소어 스페셜 니즈(SOAR Special Needs)의 스테판 닥 헌슬리 박사가 사전 강연에서 'Disability 101 - Intense Ministry Dive'라는 주제로 장애인 사역의 기초와 실제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개막식에서는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목사의 환영사와 미주 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캘리포니아 침례대학교 제프 맥네어 교수가 '장애인과 함께 걸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성경적 원칙에 따라 장애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교회 내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논의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NC 온누리교회 김태형 목사가 "장애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함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달았다"며 20여 년간 장애를 가진 딸을 양육하며 느낀 슬픔과 좌절, 그리고 소망과 감사를 진솔하게 고백해 참가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줬다.

둘째 날의 시작을 여는 강연으로 29년 동안 장애사역을 섬겨온 윌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의 장애 및 포용 사역 디렉터 제니 본 토벨이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나눴고, 칼스테이트 LA 특수 교육학과의 김효선(크리스티나 김) 교수는 당장의 결과나 보상보다 멀리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장애사역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션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직접 선택하여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 김민선 기자

➔ 3면에서 계속

"어떻게 할리우드를 뚫었냐고요? 답은 너무 쉬워요"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는 11월 3일(주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31주년을 기념했다.

코너스톤교회를 방문한 특별한 손님은 지난해 11월 다니엘 기도회에서, 스키를 타다 오른쪽 발목이 완전히 으스러지는 사고를 겪으며 180도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그의 삶과 그의 작업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는지에 대한 간증을 통해 많



스티븐 오 촬영감독(XM2 대표)

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스티븐 오 촬영감독이였다.

주디 한 기자 ➔ 4면에서 계속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5 대선 승리를 선언하며 다시 한 번 미국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새벽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의 컨벤션센터에 모인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당선 연설을 펼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제45대이자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신의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남윤식 기자 ➔ 6면에서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승리를 거둔 뒤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WSJ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 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설교대회 대상 “고아 돌보며 하루 빵 2천 개 북한에 보냈죠”

지난 10월 12일(토)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제9회 설교 페스티벌의 대상은 중국 요녕성 단둥(북중 접경)에서 북한 고아들을 먹일 2,000개의 빵을 보내는 사역을 해온 류명순 선교사(월드미션대학교)에게 돌아갔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라”(고후 12:9-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북한 간부가 빵공장에 데리고 온, 평양에서 가장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과의 영적 대결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끌어 낸 체험을 전해, 심사위원과 참석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류명순 선교사는 제주도 출신 고아였다.

그는, 펜데믹 이후 엄격한 제재로 때문에 단둥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민통선 내 해마루촌 교회에서 북한을 위한 특수 사역자를 기르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졸업했는데, 북한에 대해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다. 북한은 아예 먹을 게 없어 인육까지 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미국에 오게 된 것도 북한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이다.”

출국 전 잠시 시간을 내 기독일보 사무실을 방문해 준 류 선교사는 북한 선교사로 부름 받게 된 이야기를 꺼냈다.

파주에는 민통선 내에 마을이 세 개 있다. 대성동, 통일촌, 해마루촌 마을이 그것이다. ‘자유의 마을’이라 불리는 ‘대성동’은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마을로, 6.25 전쟁 당시 피난 갔던 주민 일부가 귀향하며 마을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높이 99.8m에 이르는 게양대에 가로 18m · 세로 12m의 대형 태극기가, 이 마을로부터 2k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북한의 기정동 마을에는 높이 158m 게양대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 통일촌은 실향민과 제대군인들을 주민으로, 투철한 반공의식 아래 건립되었고 해마루촌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 때 1998년 햇볕정책에 따라 실향민 1세대와 연고자를 주민으로 조성됐다.

해비타트 운동이 한창일 무렵, 중보기도팀에서 3년 반 정도 훈련을 받고 있던 류명순 선교사는, ‘DMZ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들어갔다.

“카터 대통령의 집짓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2008년에 중비기도팀에서 계속 DMZ안에 들어라가라는 지시를 받고 아는 분을 통해 들어갔다. 한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느냐고 물으셨다.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집 한 채를 배정받고 주민증을 받게 되었다. 그곳 마을회관에 ‘북한 선교 센터’ 간판을 걸고 선교를 시작했다.”

이 선교센터의 설립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류 선교사의 발걸음을 북한 신의주 접경 도시인 중국 단둥(요녕성)으로 이끄셨다.

당시, 류 선교사는 주안 장로교회 청년들과 강화도 고아원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 중 한 쌍이 결혼하게 됐다. 이 신혼 부부는 중국 단둥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혼여행에 류 선교사가 동행해 주길 끈질기게 설득했다. 한 달이 넘게 지속된 그들의 설득에 ‘사진만 찍어주고 오자’는 마음으로 단둥 땅을 밟은 그에게 전혀 뜻밖의 사건들이 이어졌다.

신혼여행이라고 단둥에 갔는데, 관광지라고는 6.25 폭격 때 끊어진 단교밖에 없었다. 그나마 관광지라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주려고 하는데 북한군 두 명이 다가왔다.

“남조선에서 온 것 아닌가?”

류 선교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잘못하면 ‘납치당하겠다’는 생각에, 청년 부부에게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낸 후, 류 선교사도 도망쳤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접경지대에 온누리교회가 있다는 게 생각나 얼른 단둥 온누리교회로 갔다. 겁에 질려 있던 그는 교회에 들어서자 펑펑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순교 시키려고 그동안 기도훈련 시키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주님, 저를 단둥을 밟게 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예배드립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남자가 헐레벌떡 본당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예배드립시다’라며 새신자 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예배를 드렸다.

알고 보니, ‘예배드립시다’라고 외친 그 남자는 6개월 전 단둥에 온 선교사였고, 연길에 GMS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13시간 기차를 타고 갔다가, ‘교회에 가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 모임을 뒤로하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뛰어온 거였다.

그렇게 단둥 땅을 밟은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확정받은 후,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를 알고 싶었다. 그 답을 알고 싶어 북한 군인을 마주쳤던 그 길을, 압록강을 바라보며 다시 걸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퍼즐 한 조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류명순 목사(왼쪽)와 유문수 목사(YMK 대표). 류 목사는 중국 단둥에서 고아들을 돌보며 북한에 빵을 만들어 보내는 사역을 할 때, 북한 간부가 데리고 온 무속인과 대결한 사건을 예화로 든 설교로 남가주 신학교 연합 설교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기독일보



류 선교사가 다민족 고아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다. ⓒYMK

민통선 안 해마루촌 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자 양성
한국 디아스포라 초청, 비전 트립 및 통일의 비전 알려

“단교와 교회 중간 즈음에 쌍둥이 빌딩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 중에 숫자 ‘1504’가 보였고 ‘올라가라’는 마음이 강력히 들었다. 그 때 마침 교회에서 봤던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제 앞을 지나가셔서 그분께 통역을 부탁했다.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IC카드가 없어 작동이 안 됐다. 포기하고 나오려는데, 어떤 남자가 15층을 눌렀다. 그래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왔다. 그 남자는 한쪽 사무실로 들어갔고, 다른 쪽 한 사무실에서 북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슬며시 안을 들여다 봤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빨리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제 머리채를 홱 낚아채더니 소파에 저를 앉으라고 했다.”

그 여성은 여전히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류 선교사 귀에 “내가 어떻게 빵을 보내냐!”라는 말이 생생하게 들렸다.

전화를 끊은 그 여성은, ‘여권을 내놓으라’고 했고, 류 선교사는 ‘저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보내주세요. 제가 실수로 잘못 들어왔습니다’라며 사정했지만, 그는 류 선교사의 쌕을 낚아채, 여권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다.

“전화 통화 중, ‘내가 어떻게 빵을 보내냐!’라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탁 끊더니, 저에게 여권 내놔, 이랬다. 여권은 못 드립니다. 안 내놓으니까 제 쌕을 낚아채서 여권을 끄집어내서 페이지를 넘기더니 중국 비자가 처음 찍힌 것을 보더라. 그러니 바로 돌려주더라.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나?’ ‘잘못 왔습니다.’ 전도사를 보더니 알아보셨다. 전도사님과 서로 아는 분이셨다.”

“제가 통화 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 ‘내가 어떻게 빵을 만드나.’ 온누리교회와 협력해서 북한 신의주 고아원에 밀가루와 설탕을 보내주는 일을 하는 분이셨다. 그런데 북한에 석탄이 없어서 못 만드니까 아예 빵을 만들어 보내달라, 중고등학생까지 먹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였다. 그런데 그때 제가 97년도에 제과제빵 자격증을 딴 것을 가지고 갔다. 그 여성에게, ‘저는 빵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자격증 두 개를 딱 내밀었다. ‘진짜 빵 기술잔가?’, ‘네, 저는 빵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그분과 단 둘이 얘기를 하게 되었다. ‘류 선생 믿을 수 있나?’ 하더니, 모니터 앞에 저를 앉으라 하더니 화면을 켜줬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신의주 어린이들 사진과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서글픔이 아니라 제가 소녀가장이었어서, 펑펑 울면서 오열했다. 울고 있는 저에게, 그분이 ‘나는 북한 고아다’라고 하셨다. ‘저는 남한 고아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 개념 빼고 고아들을 먹여보자. 나는 세계 어린이 대사로 증명을 받았다. 나는 어린이들을 먹여야 돼.’”

북한 여성은 류 선교사에게 빵공장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이후 류 선교사는 빵공장에서 한족, 한국, 조선족 등 다문화 청소년 30명을 돌보며 북한으로 날마다 2,000개 빵을 보내는 사역을 펜데믹 직전까지 지속했다. 그들과 24시간 함께 하며, 매일 선교하고, 기도, 봉사, 북한에 물자를 보내는 일을 했다.

지금은 단둥에 갈 수 없게 되어 민통선 안, 파주시 해마루 촌 교회에서 여전히 북한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다행히 단둥에서 빵공장을 하며 돌본 30명의 아이들, 이제는 청년이 된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신학교육을 시키고, 각자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물론, 류 선교사의 북한을 위한 사역에 마음과 뜻을 함께해, 그의 사역을 돕는 청년들도 있다.

최근 류 선교사와 그의 남편인 유문수 선교사(북한선교 비영리단체 YMK, Youth Mission with the Kids 대표)는 제주에 개척하며 이제 한반도와 한국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사역으로 확장했다. 한국 디아스포라들에게 두만강, 단둥 지역에 비전트립을 통해 북한을 향한 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깨우기 위해 아웃리치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월드미션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세계복음선교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주디 한 기자

2024년 디카시인협회 동계신인상 공모

미주한인사회와 미주를 선도할 수 있는 디카시 창작 작품을 모집하며,
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디카시인협회 신인상을 공모합니다.
디카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재능 있는 신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응모: 디카시 3편
* 응모기간: 2024년 11월 10일(일) ~ 11월 30일(토)까지
* 발표: 2024년12월 10일(화) 개별통보
*응모자격: 미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안한다
* 혜택: 입상자들은 디카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가능하며, 등단증을 발급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학생들은 디카시인협회에서 활동하며 커뮤니티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 유의사항: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표절이나 사진도용이나 모방이 밝혀질 경우 모든 당선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당선자는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한달에 한번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회장: 이동규 총무: 최경일 TEL: 213-422-8916
email: dicapoet@gmail.com, dicapoeminstitute@gmail.com
13939 BOXWOOD PL. PANORAMA CITY, CA 91402

주최: 디카시인협회(DICAPOET ASSOCIATION), 디카시인연구소(DICAPOEM INSTITUTE)
한미크리스챤 디카시인협회 (Korean-American Christian Dicapoet Association)

러빙워십과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경험 선사할 예정

12/13(금),14(토), 라 미라다 극장서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스티비 원더 등과
작업한 미국 밴드, 가스펠 그룹 출연



12월 13일(금) 오후 8시, 14일(토) 오후 7시에 러빙워십과 새롭게 하소서 팀이 함께 하는 콘서트 "Beloved"가 라미라다 극장에서 열린다. 러빙워십의 스텝들. 왼쪽부터 이용주 선교사, 강승형 간사, 제인 리 간사, 재키 정 간사. 김낙영 간사, 조애나 서 간사, 정윤경 간사, 캘리 그레이스 간사. ©기독일보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둔 12월 13일(금), 14일(토) LA에서 크리스천 가정의 회복을 위한 힐링 토크 콘서트가 라미라다 극장(La Mirada Theatre)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제이어스와의 연합 콘서트, 올해 8월 비와이 콘서트에 이어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남가주에 '회복'이란 선물을 전하기 위해 '새롭게 하소서' 팀을 초청해 힐링 토크 뮤직 콘서트 "Beloved"(사랑하는 자여)를 준비했다.

지난 비와이 콘서트에서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번 콘서트는 믿음의 가정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러빙워십의 이용주 선교사는 이번 콘서트의 주제를 '회복'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30~40년 사신 분들도 전례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신다. 펜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고, 일을 찾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이 각박해졌다. 그런 모든 면에서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다."

남가주에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천 문화를 통해 그리스도 안의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러빙워십이 문화 선교 콘서트를 여는 이유다.

"또 한 가지는 셀폰이 나오면서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함께 모이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크리스천을 위한 콘서트를 통해 함께 모이는 좋은 문화를 형성하려 한다."

이번 Beloved 콘서트는 2시간 동안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들(주영훈, 박요한 목사, 가수 송지은, Singer song writer 조범진 교수)과 러빙워십의 조셉 리 목사의 토크 형식으로 진행되며, 음악이 첨가된다. 총 4부 순서로 구성되며, 각 순서 마다 주제에 따른 음악을 선보이게 된다. 음악적 부분은 라라랜드 월드투어 쇼에 참여한 트로이 최(최경태)감독이 총괄하며, 사랑과 평화에서 기타리스트와 보컬리스트로 활동한 Singer-songwriter 조범진 교수, 마이클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 스티비 원더, 휘트니 휴스턴 등과 함께 음악 작업을 했던 밴드, 미국 가스펠 그룹도 참여한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팀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큰 그림과 기획은 죠셉 리 목사가 맡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일들은 모든 간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준비하고 있다.

"저희가 준비한 콘서트는 일반 콘서트가 아닌, 콘서트라는 형식을 안에 복음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은혜 받는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정말 많은 공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개인적으로 모두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있다."

러빙워십의 앞으로의 계획은, 일년에 한 두번 문화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 남가주 교회들과 협력을 통해 릴레이 콘서트처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양한 장르, 다양한 스타일의 문화 콘서트를 기획할 것이며, 유투브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이번 "Beloved" 힐링 토크 콘서트는 나성영락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베델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충현선교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토랜스 조은교회, LA동부사랑의교회, LA온누리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에브리데이교회, 기독일보, KBS, SBS, YTV 연합뉴스, 순 무브먼트 글로벌(Soon Movement Global)이 협력하며, Loving Worship이 주최하고 주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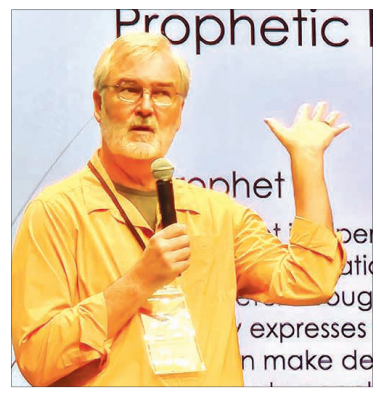
주디 한 기자

콘서트 일정
12/13 (금) 오후 8시
12/14 (토) 오후 7시
티켓 구입: https://lamiradatheatre.com/
문의: 213.357.1565

➔ 1면기사 〈장애사역은 선택 아닌 필수〉에 이어서







김태형 목사가 장애 자녀를 둔 경험을 나누었고, 배주은 자매가 특별 공연을 하고, 제프 멕네어 교수가 교회 내 장애인이 있음으로서, 예언적 기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안송주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학부 및 다국어 트랙 학장), 에이미 켄달(마리너스 교회의 장애부서 리더), 백진숙 대표(Being Built Together 대표) 등이 발달장애 사역의 접근법과 실천 방안을 나누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뉴저지초대교회의 추민지 전도사가 장애인과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제시했고, 공인 행동분석가인 추필립 대표는 장애인 행동 수정에 대한 방법을 소개했다. 나성영락교회의 장애부서를 담당하는 이준혁 목사는 장애부서의 성례전 참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점심 이후 찬양사역자 배주은의 찬양을 통해 2부 순서가 시작됐으며, 북미주개혁교회 Thrive Agency의 린지 위랜드 카펠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노인 성도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제프 맥네어 교수는 교회 내 장애인의 존재가 더 큰 기독교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논의했고, 베일리 라캄브라(The Grove Community Church)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교회의 지원과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NC 온누리교회의 션 리 전도사가 주요 강연자들과의 패널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세션 강의가 이어지며 깊이 있는 강연을 이어갔다.

폐회예배에서 스테판 닥 헌슬리 박사는 교회가 장애 가정과 협력해 그들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윌로우 크릭 장애부 예배 현장을 담은 영상에서는 아이들 각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소개됐다.

미주복음방송의 이영선 사장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포용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랑과 포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며 교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22명의 다양한 강사들이 심도 깊은 강연을 해주어 유익했다", "장애 사역에 대한 전략과 관점을 얻을 수 있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AI 통번역 서비스 덕분에 언어 장벽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는 소감도 있었다.

2024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의 모든 강연은 미주복음방송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컨퍼런스 자료집은 공식 웹사이트(https://www.k-churchconference.org)에 공개해 더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발달장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샬롬 김 박사 세미나 11/18(월)

미주복음방송 주최 샬롬 김 박사의 '하나님의 경영과 시간 경영 세미나' 가 오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자 '비전 라이프 스케줄러' 의 개발자인 샬롬 김 박사이다.

이번 '하나님의 경영과 시간 경영 세미나' 는 모든 대상에게 열려 있다. 특별히 2025년 새롭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찾는 학생들과 가정을 경영하는 주부들, 기업의 경영자들, 교회의 사역자들 등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 경영' 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초대한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이며, 선착순 40명에겐 '비전 라이프 스케줄러' 를 선물로 준다.

등록문의는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 으로 하면 된다.



“지구가 하나님의 영화 세트장, 감독은 하나님”

코너스톤교회 31주년 기념 간증집회, 스티븐 오 감독

➔ 1면 기사 〈어떻게 할리우드...〉에 이어서 스티븐 오 감독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 오후 4시 한어 간증, 오후 7시 영어 간증을 통해, 특수촬영 감독의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다.

“하나님 없이 불가능해요. 사는 게 소용 없어요.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죠.”

촬영감독인 그는, 삶을 영화 촬영장에 비유하며 “사실 지구가 하나님의 영화세트장이다. 여러분은 그 영화 세트장의 연기자, 배우,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명 감독, 촬영감독, 다양한 일자리를 갖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감독이시며,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상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탤런트를 각자에게 주셨다”라고 했다.

그는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어떻게 할리우드를 뚫으셨습니까?’, ‘뭘 공부하셨기에 촬영감독이 되셨습니까?’, ‘성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 답은 너무 너무 쉽다. 믿음이 먼저냐 직업이 먼저냐, 이것이다.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실패가 없다. 사실 하나님 손만 잡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린다. 할리우드 입학을 하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공을 먼저 해야 한다. 저는 신기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필름 전공을 하지 않았다. 하루도 필름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 저는 특수 촬영감독이다. 시작은 드론으로 시작했다. 55파운드 드론을 친구들과 개발하고 최근에는 220 파운드 드론을 개발했다. 지금은 달리는 자동차, 헬리콥터, 제트기를 조정한다. 가장 위험하고 어렵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압박이 크고, 삭막한 일이다.”

스티븐 오 감독은 멜번에서 태어난 호주 2세이다. 그의 아버지는 올림픽 IOC에서 일하고, 한국 대표팀 캡틴이기도 했던 태권도 사범님이었다. 화학 공학을 공부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큰 사고가 있었다. 스키를 타다가 점프를 했는데 오른쪽 발목이 으스러졌다. 그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22살에 머리가 다 빠졌다. 그러나 그는 이 머리가 모두 빠진 것도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머리 빠진 것도 감사하다. 수술 4번을 받고 학교도 보류했다. 아는 형님이 관광 가이드를 해보라 하셨다. 한 번은, 촬영팀이 멜번에 왔는데 제가 운전사로 일했다. 보태니컬 가든에서 촬영을 하는데, 허락을 못 받아서 장비 트럭을 못 갖고 들어갔다. 제가 관리자를 설득해 허락을 받아냈다. 그러자 감독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거 배울래? 하셨다.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사람들이 제 나이를 궁금해했다. 제가 말이 짧고, 감독에게 반말을 하고 머리가 없으니 제가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던 거였다. 감사하다. 머리가 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골라서 감사하지 말라.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호주 출신 스티븐 오 특수 촬영감독(XM2 대표)은 11월 3일 코너스톤교회 31주년 기념 간증집회에서 자신을 특수 선교사라고 소개했다.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의 영화이다. 다 의미가 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발전할 수 있다. 다 무사하면 배우지 못한다.”

“88파운드 드론을 3주만에 만들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주위 사람들은 다 말렸다.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두 개를 만들라 하셨다. 이게 쉽지 않다. 카메라만 15만불, 렌즈가 8만불, 악세사리 까지 하면 돈이 많이 깨진다. 실패하면 몇 억이 날아가는 거다. 2주 반이 지나고, 88파운드 드론을 띄웠다. 갑자기 드론이 스스로 나무를 들이박더니 터져버렸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저에겐 두번째 드론이 있었다. 두번째 드론을 띄웠는데 너무 잘되었다.”

그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라고 꼭 기도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나의 어려움과 두려움, 걱정, 스트레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눈을 뜨고 화장실을 가기 전에,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기도를 하고 화장실에 간다. 그 기도가 제 일부가 되어서 분리가 안 된다.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틀을 찾으세요. 더 찾아 기도하세요. 강퍅하지 말라, 시간이 아깝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니다. 은혜도 너무 다양하다. 저는 어쩔때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은혜를 받고, 걷다가도 은혜를 받는다. 더 찾을 수록 더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눈이 감겨 있어서 제가 아버지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차가워 져서 아버지 은혜를 못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은혜가 더 넘치게 온다. 오늘 코너스톤에서 받는 은혜가 너무 새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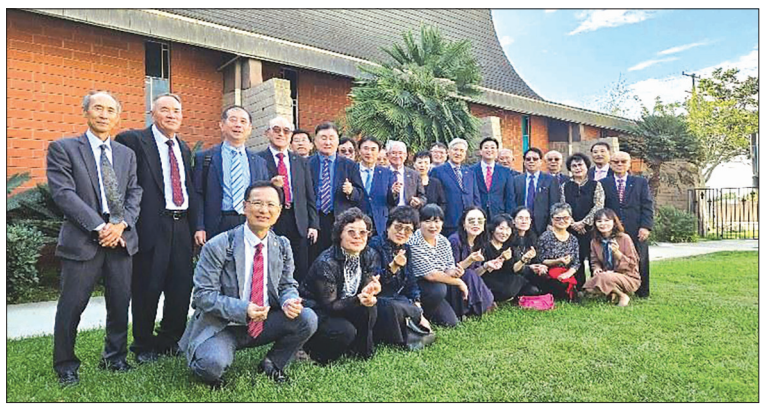
주디 한 기자

예비역 기독군인회 회장단, 주님세운교회 방문

10월 29일 주일 주님세운교회에서는 대한민국 예비역 기독군인회 회장단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다.

금번 대한민국 예비역 기독군인회 회장단은 브라질 상파울로 세계 기독군인 대회와 LA 미주 군선교대회에 방문하게 되었으며 나라 살리기 기도에 귀한 역할을 감당한 주님세운교회 성도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다.

26사단장을 역임한 박남필 회장(국군중앙장로교회 장로)과 미주 기독방송 남철우 목사의 인솔로 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방문단은 주일예배후 한미 재향군인 합동예배(헌팅턴 비치교회)를 마치고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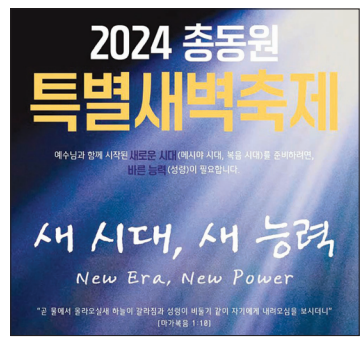


10월 29일 주일 주님세운교회는 대한민국 예비역 기독군인회 회장단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다. ⓒ주님세운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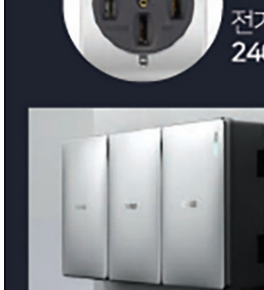
새누리교회 총동원 새벽축제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가 오는 11월 4일(월)부터 23일(토)까지 오전 5시 15분에 2024 총동원 특별새벽축제를 개최한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메시아 시대, 복음시대)를 준비하려면 바른 능력(성령)이 필요하다는 비전 아래,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막 1:10)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새 시대(New Era), 새 능력(New Power)”을 주제로 특별 새벽집회를 개최한다.



주강사는 남가주새누리교회 담임 박성근 목사, 초청 강사는 11월 13일 남가주 동신교회 백정우 목사, 11월 20일 얼바인 우리교회의 데이빗 권 목사이다.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2024년 메디케어 보험가입 및 변경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65세 이상의 시니어세요?
메디케어 HMO 부가혜택이 많은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을 경우
보험사별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메디케어 가입 시 3가지 선택
보험회사, 메디칼그룹, 주치의 3가지를 선택하세요.
주치의가 서울메디칼그룹 소속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주치의가 있으시다면?
주치의의 의료보험 및 서울메디칼그룹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보험 에이전트나 서울메디칼그룹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문의전화: **866.760.3441**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4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10.27 연합예배로 한국교회 대각성, 불 타오를 것"

오정현 · 손현보 · 박한수 목사 · 이용희 교수의 집회 평가와 전망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27일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및 여의도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210만 명(현장 110만, 온라인 100만)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는 근래 한국교회 역사에서 최대 규모 집회로 평가받고 있다. 기독일보는 이 연합예배를 준비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참여 소감과 연합예배의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해 들었다.

◆ 오정현 목사 "복음의 역전 이룰 분기점"

먼저 이번 10.27 연합예배 공동대표를 맡았던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는 "선교의 마인드로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품격 있는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신 봉사자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 목사는 "이제 우리가 분열의 영을 끊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패배주의를 벗어나 성경을 더 굳게 붙잡고 거룩한 복음의 역전을 이룰 분기점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다.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를 소망한다"고 했다.

앞서 오 목사는 10.27 연합예배 개회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며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새롭게 부흥을 경험하길 소원한다"고 했었다.

◆ 손현보 목사 "한국교회 대각성"

이어 10.27 연합예배를 최초 제안하고 준비 과정에서 조직위 실행위원장을 맡았던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 참여하신 성도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손 목사는 "이번 10.27 연합예배는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였다며, 해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됨을 경험했던 소중한 연합예배였다"고 전했다.

또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선 "한국교회에 대각성을 일으켰다고 본다. 성도들이 위기상황임을 느끼고 일어났다. 특히 청년들이 그랬다"며 "차별금지법이 그토록 위험한 것인지 잘 몰랐다가 비로소 그 실체를 깨닫게 됐다. 그런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결집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손 목사는 "이제 10.27 연합예배로 하나 된 한국교회가 앞으로 조직적으로 위기에 대처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을 만들 계획"이라며 "기독교 전문인력들과 함께 반기독교세력에 맞서 성경적 신앙을 회복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한수 목사 "성도들 자발적 참여, 큰 모멘텀"

10.27 연합예배에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한국교회가 깨어나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낼 것을 주문한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이번 연합예배에 대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동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의 메인 집회 장소였던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성도들이 운집해 있다. ⓒ조직위

박 목사는 "사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제는 보편적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많은 성도들이 연합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아직 깨어있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는 "이 불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힘은 한국교회에 큰 방어막이 될 수 있다"며 "교회 지도자들도 이번 연합예배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큰 힘과 자신감, 그리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10.27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방향성에 큰 모멘텀이 됐다고 본다"고 했다.

박 목사는 "한편,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여 교회 안에서 이번 연합예배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로 인해 마찰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반대만 하지 않으면 우군이라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서로 조심하고 신중하게 연합해야 할 때"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이번 연합예배를 평가절하하는 보도도 있지만 사실과 실체는 속일 수 없다"며 "10.27 연합예배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우려하는 바를 전달했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집회를 잘 마쳤다. 뒷정리도 깔끔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사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10.27 연합예배 조직위는 이번 집회를 위한 일시적 단체로서 이제 흩어진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앞으로 길고도 오래 걸릴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결집된 단체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속적 싸움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용희 교수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

이번 10.27 연합예배를 앞장서 준비해 왔고, 당일 기도회를 인도했던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연합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준비 기간이 채 두 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됐다"며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내용에 집중한 연합예배였다는 점이 좋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성도들과 서울역 예배에 참석했고, 손현보 목사님은 연합예배를 가장 앞장서 준비했음에도 본인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며 메인무대가 있던 시청 앞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셨다"며 "이런 모습들에서 이번 10.27 연합예배의 진정성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문제점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목표했던 바가 잘 이뤄진 것 같다"며 "10.27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할 것이다. 정말로 달라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최근 30년간 한국교회에서 이런 집회가 없었다"며 "그런데 한국교회가 동성애와 성전환, 차별금지법 문제 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건 매우 뜻깊은 일이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1면 기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이어서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다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경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냈다"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승리가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이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승리 선언은 주요 경합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최대 승부처로 꼽힌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의 측근들은 이러한 승리가 향후 정책 추진의 탄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설 도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주에서 개표가 마무리되면 최소 31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자신했다.

이날 무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자녀들,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부부, 캠프의 주요 참모들이 함께 했다.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운영 무료 공개 강의

비영리 단체 설립 및 운영 무료 공개 강의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11월 9일(토) 오후 1시부터 오렌지 카운티에서 현장 무료 강의로 진행된다.

비영리 단체는 주정부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마친 후 IRS로부터 501c3 Tax Exempt 승인 받아야 도네이션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세 신고 시 Charitable Contribution 항목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는 주정부 특히 캘리포니아 (State of California) 비영리 단체 설립 준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IRS 와 CA 주정부 Tax Exempt 인정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CA 의 세금 관리 기관인 FTB(Franchise Tax Board) 에서는 Tax Exempt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일반 기업과 같이 $800 기본 세금을 부여한다. 또한 이번 강의에서는 3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서 기존의 Tax Exempt Status 가 Revoke 된 경우를 다시 살리는 방법에 설명과 함께 NPO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churchhomepage.org
이메일:icmm@churchhomepage.org **전화**: 949-667-0264(J. Lee, JDSN) 714-393-4595(ICMM Center)

김민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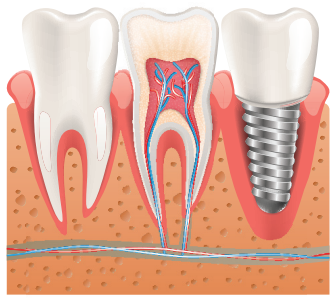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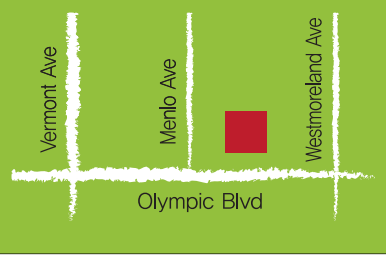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에스더 이 원장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미주 기독일보 후원

한국 혜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서울동부지역 으뜸병원, 혜민병원

혜민병원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큰 행복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검진내용

- CT 촬영(뇌, 폐 선택)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혈액 췌장암 CA19-9
- 갑상선 검사 (TSH,T3,T4)
- 수면 대장내시경.뇌 MRI 중 선택
- 수면 위내시경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골밀도
- 70개의 기본검사
- 경동맥 초음파
- 뇌 MRI

검진비용

~~$950~~ **$4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양도 양수가능)



종합건진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혜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문의전화 T.(213)341-5123

교협 제55회 진건호 회장, “첫째도, 둘째, 셋째도 통합”

나사렛교단 목사 선출 이례적
미국 교단 출신 목회자들 대거 집행부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1월 2일(토) 찬양교회(LA First Church of the Nazarene)에서‘제55차 정기총회’를 열고, 진건호 목사(하톤교회 · RPCA 총회장)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미주조선일보

최근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가 3개로 분열되어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1월 2일(토) 3가와 후아니타 애비뉴(Juanita)에 위치한 찬양교회(LA First Church of the Nazarene)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열고, 진건호 목사(하톤교회·RPCA 총회장)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남가주교협은 상임이사회를 가지고 운영되는 교협(대표 진건호 목사)과 상임이사회가 부재한 단체(대표 최영봉 목사), 다른 정관으로 운영되는 단체(대표 전동석)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 가운데 1970년부터 55년간 합법적으로 개정되어 유지된 정관을 지닌, 상임이사회를 두고 협회의 운영해 온 교협(대표 진건호 목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협은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으며, 두 개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각각 총회를 개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제3의 세력이 새로운 기독교교회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조짐까지 보여,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진건호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 무조건 통합"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한편, 장로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인 개신교계에서 나사렛교회 출신인 진건호 목사가 교협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남가주 교계의 새로운 흐름을 시사한다. 미국 개신교계가 교단 보다는 특정 교파나 교단의 통치나 지도를 받지 않고, 각 교회의 교역자와 교인들의 의견으로 운영하는‘커뮤니티 교회’로 옮겨가고 있듯, 이날 예배 및 정기총회도 장로교 목회자들 중심이 아닌 나사렛교회, 그리스도의교회, 그리스도의 제자회 등 주요 미국 교단 출신 목회자들이 대거 집행부에 참여하며 통합의 의지를 굳혔다.

남가주교협은 “교회를 위한 교협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교협으로, 영성훈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말씀에 청종하는, 정직성을 회복하는 진실한 공동체적 교협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의 새 집행부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중 순경 진건호 회장 취임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셉 리 기자

예장 대신 서울동노회, 신임 노회장에 서사라 목사 추대

첫 여성 노회장
LA주님의사랑교회 담임



서사라 노회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신 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서울동노회

예장 대신 서울동노회 신임 노회장에 서사라 목사가 추대됐다.

서울동노회는 지난 15일 126회(추계) 정기노회 및 목사임직식을 경기 이천시 주님의사랑교회에서 개최하고, 서사라 목사를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신임 노회장에 추대했다.

이날 개회예배는 서사라 목사 사회로 회록서기 양한영 목사의 기도, 서기 김장호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노회장 이차복 목사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살전 5:23)’ 설교, 해외선교부 우인식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노회장 이창복 목사의 축도 등이 진행됐다. 성찬식에서는 증경노회장 강영철 목사 집례로 김희경·유인숙·이화숙 목사 등이 함께했다.

노회에서는 노회장에 서사라 목사 외에 부노회장에 김장호 목사와 김준식 장로, 서기 양한영 목사, 부서기 김희경 목사, 회의록서기 서정경 목사, 부회의록서기 이화순 목사, 회계 김옥례 목사, 부회계 김성모 장로 등을 각각 선출했다.

안건토의에서는 조윤빈, 정태헌, 유명환, 송비파, 장미숙, 이홍희, 최경란, 임인경, 조묘식, 윤미숙 등 10명의 목사 임직 청원의 건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청원 참된교회(담임 강영철 목사) 1명, 주님의사랑교회(담임 서사라 목사) 2명 등 장로 증원 건도 통과됐다.

서사라 목사는 “첫 여성 노회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부족한 저를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사랑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노회 소속 선후배 목사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노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사임직식에서는 안수자 10명이 몸과 마음을 다해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고, 공포에 이어 목사임직패를 수여했다.

신임 노회장 서사라 목사는 이화여대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 의대 생물학 박사를 취득한 의사로, 뒤늦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美 탈봇신학대학교에 입학해 크리스천처치(디사이플스)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현재 LA 주님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센터메디컬클리닉 로렌하이츠점 건강 세미나



송홍우 주치의는 로렌하이츠점 개원 기념으로 주변의 보건센터를 방문하여 무료 건강상담을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메디컬

‘하루에 한 자리 수 환자 고품질 진료’를 모토로 한 시니어 전문 병원인 센터 메디컬 클리닉이 최근 3호점까지 확대되었다. 3호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송홍우 닥터가 맡았다. 꼼꼼한 진료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정성스레 듣고 자세한 진단을 해주는 덕분에 오픈을 하자마자 시니어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송홍우 주치의는 특히 로렌하이츠점 개원 기념으로 주변의 보건센터를 방문하여 무료 건강상담을 진행하고있다. 첫번째 타자로는 로렌하이츠에 있는 스프링 양로센터이다. ‘노인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180여 명이 모인가운데 자세한 건강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날 시니어들은 송홍우 주치의의 자세한 건강관련 설명과 재치있는 입담에 빠져들며 마지막 마무리로는 ‘7분전신운동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메디컬 클리닉 로렌하이츠지점의 송홍우 주치의는 1환자 1시간 프리미엄 진료를 모토로, 모든 시니어들의 고민과 질환을 꼼꼼히 살피고 여러 간단한 시술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렌하이츠점 (626) 363-4661



“북한, 유엔 UPR 인권 개선 권고 즉각 실천해야”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 ⓒ뉴시스

북한인권단체들이 11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북한이 UPR에서 권고하는 인권 개선 이행사항을 즉각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존권 및 시민·정치적 권리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분야에서 교육권,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매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하고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은 북한주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가용자원을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투입하고, 청년들을 러시아에 군대로 파견하는 등 군사적 무력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에 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히 우려하고, 북한이 인권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유엔에 가입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그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 권고하는 북한인권 개선 이행사항을 즉각 실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인권단체들은 UPR 기간에 각국 대표부와 시민사회 참가자, 유엔 직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와 권고사항을 알리는 공개 부대행사를 갖는다.

유엔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UPR은 현재 제4차 주기가 진행 중이며,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검토는 오는 11월 7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08년에 시작된 UPR 절차에 참여하고 검토를 받아왔으며 북한도 지금까지 3회의 주기에 모두 참여했다. UPR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심의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해 자국 국민의 인권과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북한인권단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자유왕래를위한모임(F2M),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 국제민주주의허브(IDH), 북한정의연대(JFNK),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KFWI), 모두모이자(KOA), 물망초(MMC),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NKIV-FA),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김진영 기자

“저평가된 아프리카 교회, 서구 주도의 선교에 도전”



케냐의 한 교회에서 한 여성이 세례를 받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나는 선교 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은 없다. 아프리카선교협회가 그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MB

아프리카선교협회(Africa Mission Association, 이하 AMA)는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이 대륙의 54개국에 선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갖고 있다. 현재는 7개국에만 협회를 두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비서구 중심 선교운동 모임인 ‘코알라2.5’(COALA2.5·Christ of Asia, Arab and Africa and Latin)에 참석한 AMA 스테판 음보고(tephen Mbogo) 부회장은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과의 인터뷰에서 “AMA가 국가 차원에서 주인 의식을 높이고 조율을 촉진함으로써 아프리카의 각국에 선교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음보고는 “AMA가 정면으로 해결하고 있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세계 선교 운동에 대한 아프리카의 기여가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된 점이다. 이러한 과소평가는 종종 선교 통계와 보고서에도 반영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교회와 단체가 수행한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간과하는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MA는 40년 역사의 나이지리아선교협회와 30년 역사의 가나선교협회 등 기존 선교단체들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각국의 선교협회가 없었다면 단절된 이들에게 다가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회가 이뤄낸 이 같은 목적의 통일성 덕분에 중남미선교협의회(이하 COMIBAM)를 통해 파견한 선교사 수나 미전도종족 수에 대한 자세하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OMIBAM은 2023년에 세계 선교를 위해 24개 중남미 국가에서 2,750명의 목회자, 850개 교회, 1,000명에 가까운 여성과 청소년을 동원했다. 음보고 회장은 “아프리카 교회는 이미 세계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서구가 주도하는 선교에 도전을 주고 있다. 제한된 자원과 인프라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아프리카가 주도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선교의 미래는 낙관적”이라며 “아프리카 기독교인, 특히 청소년의 열정·헌신·영적 활력에 내재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c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센터메디컬클리닉에서
함께할 주치의를 모십니다.
조이스 리
센터메디컬클리닉
플러튼점
(714) 519-3024
임유일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점
(714) 583-8569
송홍우
센터메디컬클리닉
로렌하이츠점
(626) 363-4661
김민성
김민성 내과
(213) 487-4141
(310) 710-7002
(562) 318-0810
임대순
바른병원
(213) 985-7777
황인용
황인용 심장내과
(714) 760-9988
(213) 528-1111
성동진
성동진 내과
(424) 551-3110
박 항
박항 내과
(213) 382-3663
김인자
김인자 내과/안과
(714) 562-5857
안우성
안우성 내과
(562) 916-5020
프랭크 최
최선가정병원
(213) 277-5723
김영래
김영래 관절내과
(714) 594-6962
방재훈
방재훈 신장내과
(714) 534-3366
박수영
박수영 내과
(714) 523-3212
(714) 735-8880
단 손
단손메디컬센터
(714) 527-2240
잔 음
은혜병원
(562) 865-3738
신창은
신창은 내과
(714) 577-2340
김학준
김학준 병원
(310) 324-4443
강신욱
강신욱 내과
(213) 380-7077
박성수
박성수 내과
(818) 678-9875
이익준
동부병원
(626) 913-8010
미래의 의료, 지금 여기서 만나다.
최상의 수준으로 만족시킬 최고의 시니어케어 전문 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 - 3098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r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전 세계 11억 명, 다차원적 빈곤 상태



시리아 난민촌에서 거주하는 이재민의 모습. ⓒ월드비전 제공

장애인을 위한 신학 마련해야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16%에 해당하는 13억 명의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우울증과 당뇨병, 뇌졸중, 비만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

여성 3억 7천만 명, 18세 이전 성폭력 경험해

10월 9일에 유니세프(UNICE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억 7천만 명의 여성들이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여아의 날'을 앞두고 유니세프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세계적 추산치에 대해 공개하면서 갈등과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1억 명, 다차원적 빈곤 상태

10월 17일에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1억 명의 사람들이 '다차원적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 상태에 놓여 있고, 그중 40%에 해당하는 4억 5천만 명은 전쟁이나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오하이오 교회들, 지역 내 아이티인들 보호에 노력

6만 명이 살고 있던 오하이오(Ohio)주 스프링필드(Springfield)에 지난 4년 동안 15,000명의 아이티인이 이주해 왔다. 자국의 폭력 사태를 피해 이주해 온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임시보호지위(TPS)를 얻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캐나다: 안락사 인구 늘면서 교회의 대응 필요해져

캐나다에서 '의료적 죽음 지원'(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소위 안락사를 통해 죽음에 이르는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000명 미만이었던 안락사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에는 10,000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3,241명이 사망해 그해 캐나다 사망자의 4%를 차지했다.

페루: 코카인 재배, 벌목 등으로 원주민들 더욱 고립되고 있어

페루는 브라질에 이어 외부와 접촉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1900년대 초, 페루 고무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약 25개 부족, 7,500명 원주민들의 상당수가 더 깊숙한 밀림 지역으로 도피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후니 쿠인족(Huni Kuin) 일부가 고립에서 벗어나기도 했지만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복음주의교회연합, 교도소 사역 협정 맺어

9월 10일, 아르헨티나 복음주의교회연합(ACIERA)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교도소 내 수감자들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 펼쳐왔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인정받고, 앞으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향후 2년간 유효한 이 협정으로 인해 복음주의 교회들은 구체적인 목표와 사역 계획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칠레: 무종교인과 무소속 기독교인 크게 늘어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칠레 공공연구센터(Centro de Estudios Públicos)에서 18세 이상 1,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는 자신의 종교를 가톨릭으로 답했고, 17%는 개신교, 4%는 기타 종교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무려 31%가 자신을 불가지론자 또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방글라데시: 임시 정부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정책 바뀔지 주목

지난 8월 25일은 미얀마에서 박해와 탄압을 피해 100만 명에 가까운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콕스바자르(Cox's Bazar)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는 수만 명의 로힝야족은 "희망은 고향이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의 시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폭력 종식과 미얀마로의 안전한 귀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네팔: 9월에 발생한 홍수로 200명 이상 숨져

네팔 일부 지역에 20년 만에 가장 많이 내린 폭우로 200명 이상이 숨지고 30명이 실종됐다. 9월 27일부터 며칠간 내린 비로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와 산악 도시 포카라(Pokhara)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이 침수되었다. 9월 30일에 네팔 당국은 204구의 시신이 재해 현장에서 수습되었고, 최소 30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이며,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

키르기스스탄: 종교활동 더 제한될 듯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안보위원회(NSC)와 종교사무국(SCRA) 관계자들이 키르기스스탄 의회에 제출할 종교법 개정안이 준비됨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교회는 심각한 제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관계 당국은 2023년 10월에 작성된 초기 법안이 철회된 지 10개월 만에 새 법안을 준비했다.

레바논: 레바논 교회, 전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 돕고 있어

중동 지역 불안이 고조되면서 레바논에까지 공격이 감행되면서 한 달 만에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란길에 올랐다. 현재 950개가 넘는 공립 학교와 관공서들이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고, 피란길에 오른 사람 중 거의 절반이 아동이어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식량과 생필품, 추위에 대처할 공간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르키나파소: 1월부터 8월까지 테러 공격으로 1,004명 숨져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는 테러 공격과 폭력의 증가로 최근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발표한 글로벌 테러리즘 지수(Global Terrorism Index, GTI)에서 1위에 올랐다.

남수단: 틱톡 동영상 퍼지면서 조혼 이슈 확산

지난 6월, 틱톡(TikTok)에 올라왔던 동영상 하나가 '남수단에서 가장 비싼 신부'라는 태그를 타고 퍼져나갔다. 남수단에서 가장 큰 종족 중 하나인 딩카족(Dinka) 결혼식 관행에 의해 여러 남자들이 지참금을 제시하면서 어린 신부를 선택하는 의식이 펼쳐진 것이다.

유럽: 소통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

지난해 9월, 글로벌교회네트워크(Global Church Network)는 유럽 전역의 교회 리더 400명이 스위스 취리히에 모인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10만 명의 목회자를 준비시킬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선교연구원(kriM) 제공

美 기독교인 변호사 "공공장소서 종교 적대감 커져"

'2024년 신앙과 자유 지수' 보고서 관련 웨비나서 지적



루이스 브라운(Louis Brown) 전무이사 @MyCatholicDoctorFoundation.com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해 온 한 변호사가 특히 미시간주에서 공공장소 종교 행사에 적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변호사이자 가톨릭 의료 비영리단체 '크라이스트 메디쿠스 파운데이션'(Christ Medicus Foundation)의 루이스 브라운(Louis Brown) 전무이사는 지난 10월 25일 나파법률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신앙과 자유 지수' 보고서와 관련된 웨비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의 주별로 종교적·규제적 자유에 따른 순위를 매겼으며, 여러 주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심지어 적대적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르면, 미시간, 워싱턴, 매사추세츠, 웨스트버지니아는 종교적 자유가 최악인 주에 속한다. 미시간은 종교 자유 22%, 규제 자유 49%, 총 32%였다. 워싱턴은 35%, 매사추세츠와 웨스트버지니아는 각각 38%였다.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 신앙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은 주는 앨라배마(72%), 인디애나(68%), 텍사스(64%), 캔자스(64%) 등이었다.

나파법률연구소 프랭크 드비토(Frank DeVito) 법률고문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제공한 성명에서 "신앙과 자유 지수는 나파법률연구소 업무의 자연스럽고 중요한 확장이다. 우리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비영리단체, 변호사 및 주 정책 입안자에게 종교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 법률에 대해 더 잘 교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해당 단체에 근무하는 변호사에게 더 나은 법률 교육을 제공하며, 의회에서 이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법률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다.

브라운 이사는 "당시 디트로이트 메트로에는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공동체의 아름다운 조화로 이뤄진 더 큰 공동체의 중추가 있었다. 아프리카계·히스패닉계·유럽계 미국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 존엄성과 종교적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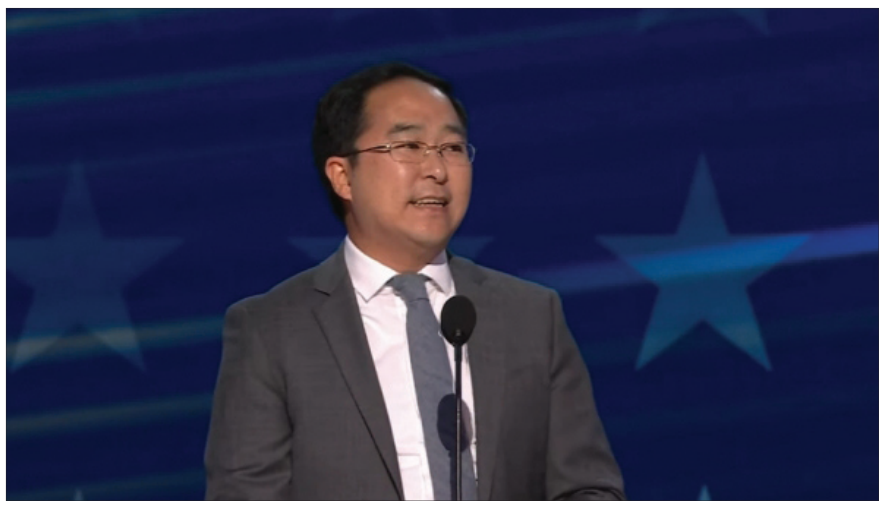
그는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몇 년 동안 주 의회에서 통과시킨 정책,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미시간주에서 선출된 공무원들이 종교적 자유, 생명의 신성함,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거나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시간주에서는 공공 영역에서 종교를 행사하는 것에 적대감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미시간 주민들이 공공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종교적 신앙을 행사하는 것을, 수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과 정책으로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브라운 이사는 "종교 지도자, 선출직 공무원, 대학 총장, 법무장관이 해당 보고서를 연구하고 각 주의 순위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와 신앙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단체에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종교적 사명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구조화하라"고 조언했다. 지역 지도자와 주 정책 입안자에게는 "종교 행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법 개정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혜진 기자

앤디 김, 한국계 미국인 최초 상원의원 당선



앤디 김(뉴저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21일(현지시각)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현지 영상 캡처

미국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앤디 김 하원의원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5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선거에서 공화당의 커티스 배쇼 후보를 꺾고 승리를 확정지으며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선거에서 김 의원은 개표가 62% 진행된 시점에 54.3%의 득표율로, 43.7%의 배쇼 후보를 앞서며 당선이 확정됐다. 김 의원의 당선 소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으며 백악관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뉴저지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시카고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춘 그는 국제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2018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22년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며 정치적 기반을 더욱 다졌다. 특히 올해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수뢰 혐의로 기소되면서, 김 의원이 상원에 출마할 기회를 잡게 됐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이후, 스스로 의사당 내 쓰레기를 청소하는 모습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사건은 그의 소박하고 진심 어린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화로 널리 알려지며,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높였다.

교민 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당선으로 김 의원은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상원의원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한국계 미국인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했다.

남윤식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어노인팅교회 전인치유 특강

"영혼육이 건강한 교회"(요한3서 1:2)를 지향하는 어노인팅교회(라 크라센타 소재, 담임 신경섭 목사)는 전달훈 Joseph Chun 내과의를 초청해 전인 치유 특강을 11월 16일(토)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30년 내과의가 말하는 몸과 마음의 병, 전인 치유"라는 제목으로 강의 또 임상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에 대해 준비팀은 "교회에서 무슨 내과 의사를 초청하고, 의사가 무슨 마음의 병, 전인 치유를 말하느냐? 고 할 수 있는데 전달훈 내과의/장로님은 영성 또 관계심리학을 공부하고 육신의 치료에 연결해온 분이라 초청하였습니다.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로 육체의 치료를 넘어 우리의 마음, 영적인 것에 연결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번 모임을 소개했다.

어노인팅 교회는 교인들의 연령이 높은 가운데 영적 건강, 육적 건강, 마음 건강 즉 영혼육이 강건한 전인 건강 사역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GIFT 상담치유연구원(원장 리디아 전 박사)와 전달훈 Joseph Chun내과의 @GIFT 상담치유연구원

지난 10월 에는 육적 건강에 해당하는 공진단 클라스를 개최해, 교인들의 필요에 알맞은 내용으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11월 16일(토)에는 육신 건강과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연결하고 성경적인 전인치유를 지향하는 모임으로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한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의 개별적인 궁금한 점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전화: 224.622.9183
이메일: mcc3694@yahoo.com(신경섭 목사)

CMF선교회 정기 모임 및 출판 감사 예배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의 순종"

CMF선교회(대표 김철민 장로)가 지난 2일 CMF회관에서 11월 정기 모임과 출판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철민 장로의 사회 아래 양병식 목사(CMF)가 대표로 기도하고 특송순서로 피아노(김희정) 바이올린(남해송) 첼로(오현승)등이 합주곡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가 연주됐다.

이어 유영택 선교사(대륙)가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의 순종'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유 선교사는 "나는 42년 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오와 결심을 갖게 됐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은총을 깨닫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고하는 말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명 총장(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은 "손문미 교수의 도서 출간을 축하하면서 제가 굳이 '첫 번째'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손 교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출간하라는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축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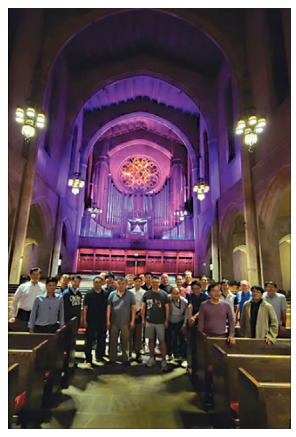
이어 한진 목사(WMU)가 서평, 손문미 교수가 감사의 인사, 김창호 목사(기독뉴스 자문위원)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CMF선교회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교했다. 김민선 기자

LA 남성 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LA 남성 선교합창단(유창호 단장)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11월 9일(토) 오후 7시 LA 다운 타운의 First Congregational Church of Los Angeles 에서 열린다.

30명 찬양단, 2명 반주자로 구성된 LA남성선교 합창단은 2008년에 창단되어 다방면으로 LA를 기반으로 공연, 음반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물결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묵묵히 주님의 일을 맡아 행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후원하며 선교와 구제를 위한 행사에 우선권을 두어 참여하면서 사랑의 실천 운동에도 앞장서오고 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게 되는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잠정 중단된 후 6년만에 다시 갖게 되는 무대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을 타이틀로 총 12곡의 찬양곡이 소개될 예정이다.





11월 9일(토) 오후 7시 LA 다운타운의 First Congregational Church of Los Angeles에서 LA남성 선교합창단의 제7회 정기 연주회가 열린다.

윤예원 자매도 공연에 함께 할 예정이며 로고스 교회 신동수 목사, 씨드교회 권혁빈 목사, ANC온누리교회 김태형 목사가 기도와 축도로 은혜를 나눈다.

이번 공연은 무료이다.

김민선 기자

문의: 626.825.9110.
이메일: lammchoir@gmail.com
유투브: www.youtube.com/user/lammchoir

남가주사랑의교회 G2G 비전예배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는 11월 8일(금) 저녁 7시 30분 비전광장에서 브랜든 캐시 교수(Brandon Cash, 탈봇신학교)를 강사로 "교회 하나님의 선물(Church, the Gift of God)"이란 주제로 G2G 비전예배를 드린다.

11월 23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제40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축제가 부에나팍 더 소스몰(The Source) 1층에서 열린다.

문의: 김명숙 전도사, 박철순 집사 714-504-9223



진유철 칼럼

싫은 것도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좋은 교육이란 싫어도 해야 할 것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끝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도 처음에는 싫었는데 교육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칭찬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엔가 재미있기까지 하고 큰 비전을 보기도 합니다. 잘못된 교육이 있다면 자기에게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십대 때는 부모 잘 만난 금수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거나 더 넓은 세상을 상대하면서 좋은 것만 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결국 낙오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이겨내기에 약하고 세상 풍파를 견뎌내기에 뿌리가 얕습니다. 싫어도 해야 할 것을 하고 또 끝까지 하는 것이 능력임을 교육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먼저 그들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는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백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기 싫어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하는 법, 매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싫어도 해야 하고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세가 될수록 세상에 크리스천들은 많은데 뜨겁게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신자 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도보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그 때서야 '기도나 해볼까?' 생각합니다. 또 신앙이 깊어지면서 기도에 대해 배우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까봐 열심을 갖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은 손해일 것이라는 마귀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는 원수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살아날 것이 싫어서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자 그 때서야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몰라서도 안 하고, 알면서도 안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전히 나를 강화시키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를 원하는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와 변명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이라는 최고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9)

우리의 기도도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음으로 잠깐 고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함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친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고, 끝까지 하는 기도훈련으로 최고의 승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샬롬!

구봉주 칼럼

10/27/24 한국교회 연합집회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담임

지난 10월 27일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 전체 성도들 100만명이 광화문 광장에 결집하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계에서 이 집회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여, 차세대 자녀들을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교육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소리였다고 평가하였고, 반대하는 쪽은 기독교가 다른 믿지 않는 국민들의 입장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보였고, 사회의 정의실현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의롭고 선한 일을 찾아 하기에도 부족한 때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누군가는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입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사회의 도덕과 윤리로 규정하여, 인간사회의 성적 역할을 혼돈에 빠트릴 무서운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법안입니다. 이 법안 때문에 자녀들이 트렌스젠더, 양성애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 간의 사랑과 동성 간의 우정은 다르지 않다 그 우정 또한 사랑이다" 가르치며, 동성간의 성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심지어 다윗과 다니엘, 예수님과 열 두 제자들의 친밀했던 관계를 동성애의 한 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정치적인 일, 사회적인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는 없습니다. 성경의 에스더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 하에, 기적적으로 왕후가 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멸절 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선처를 베풀어 달라 요청했습니다. 이 일도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인 개입입니다. 왕후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민족의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입법부에 전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으며, 이것은 다른 믿지 않는 국민들 중에 같은 입장을 가진 분들까지도 대변한 것이니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번 집회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치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 신앙적, 성경적 관점을 설명하기 보다는 믿지 않는 분들이 납득할 만한 사회적 논리로만 접근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창조론이 웬 말이며, 동성애를 죄로 혹은 회개할 일임을 선포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유럽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직접 경험을 하고 후회했던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호소하는 집회라면, 집회의 목적에 부합한 모임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 쪽에서는 예배를, 저쪽에서는 젊은이들이 찬양과 율동을, 또 다른 쪽에서는 목회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와 기도회를 인도하는 등 다소 산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느낄 만큼, 타락의 정도가 심화되었음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번 집회에 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 입장에 선 목회자들과 신학교수들 중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며, 종교적 입장을 고집하느냐? 그럴 시간과 돈이 있으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무서운 미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사회적 윤리와 도덕 인권과 같은 일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무섭게도 인권,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적인 풍조입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의 기준이 아닌, 현대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와 도덕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풍조는 하나님을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는 독재자로 느끼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만들 것이고, 즉,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반대되는 가치와 윤리가 만연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 싸움은 "인본주의 즉, 인간이 결정하는 가치와 윤리냐? 신본주의 즉, 하나님께서 뜻하고 명령하신 영적 가치와 기준이냐?"의 싸움입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고, 신자와 교회들은 배교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그러한 세계관으로 세뇌당하여, 아무런 고민 없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믿음과 자녀들을 보호할 자는 우리 자신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저항해야 합니다. 전투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박동식 칼럼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고: 그래도 살아야 하는 삶 아닌가?



박 동 식 교수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가슴 아픈 삶〉

"……왜, 죽으면 안되는 거야?" 책 전체의 주인공 영혜의 이 질문은 스스로 죽고자 하는 이들이 자기 죽음의 정당성에 세례를 베풀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다.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라,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없기에,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의 키워드 중 하나는 가슴인 것 같다. 영혜가 거의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가슴이 답답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자해를 하고 난 뒤 꿈 속 독백이 가장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손목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가 명치에 걸려 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어떤 고함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아픈 건 가슴인데 이유는 그 가슴에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표현에도 죽음과 가슴은 이어진다. 여기까지는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 그런데 영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쉬게 할 수 없어."

영혜의 이 말은 칸트의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세 질문을 연상시킨다. 영혜식으로 답하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다. 철저한 허무주의적 불가지론의 모습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아픈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가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 말이다. 혼자만 아프다, 생각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아픔이 가장 크다, 생각지 말아야 한다. 영혜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도 비슷한 표현에 집착한다. "아무도 날 이해 못해……의사도, 간호사도, 다 똑같아."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신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숨을 쉬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잘난 고상함이 타자의 도움을 거부하며, 자신의 아집이 자신을 살리지 않으며, 자기중심성이 자신을 숨 쉬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죽이는 거다. 엄연한 '자기중심적 자기살인'이라 할 수 있다.

〈살아본 적 없는 삶〉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니 인혜가 왕십리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철길 사이에 피어난 풀들을 바라볼 때 했던 생각을 들여다보자. 그녀는 '이 세상을 살아본 적 없이 다만 견뎌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살아본 적 없이도 살 수가 있구나. 생을 살지 않고 견뎠다는 건 슬픈 현실이자 가슴 아린 자기 독백이다. 때로는 견디는 것도 인생이지만 인생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사는 것과 견디는 것의 차이는 커도 너무 크다. 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기보다는 살아야 한다. 생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인혜는 이런 자신의 생각을 동생 영혜의 모습을 보면서 바꾼다. 삶을 살지 못하고 견뎌온 자가 생의 줄을 놓으려는 자에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책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건 말이야……어쩌면 꿈인지 몰라. 그녀는 고개를 수그린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영혜의 귓바퀴에 입을 바싹 대고 한마디씩 말을 잇는다.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그녀는 고개를 든다."

동생을 살려 보려고 고개 숙여 '지금의 모습은 꿈이야. 꿈이 전부는 아니야.'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말이 끊어진다. 그리고 고개를 든다. 갑자가 말이 끊어지는 걸로 봐서 영혜가 죽은 것으로 보인다. 인혜는 그것을 죽음과 삶의 대구로 묘사한다. "솔개로 보이는 검은 새가 먹구름 장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이 보인다." "쏘는 듯한 여름햇살이 눈을 찔러, 그녀의 시선은 그 날갯짓을 더 따라가지 못한다."

먹구름장과 햇살의 대구다. 죽음과 삶의 대구다. 먹구름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눈부신 햇살이듯이, 죽음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역은 어쩌면 생의 눈을 찌르는 눈부신 영역인지도 모르겠다. 눈이 부신다는 것, 그것은 살아야 할 이유다.

〈그래도 살아야 하는 삶〉

삶과 죽음의 대립 앞에 인혜의 마음과 눈은 복잡하다. "조용히, 그녀는 숨을 들이마신다. 활활 타오르는 도로변의 나무들을, 무수한 짐승들처럼 몸을 일으켜 일렁이는 초록빛의 불꽃들을 쏘아본다. 대답을 기다리듯, 아니, 무엇인가에 항의하듯 그녀의 눈길은 어둡고 끈질기다."

인혜의 눈은 신정론적 물음을 제기하는 눈이다. "왜, 왜, 왜 내 동생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저항이다. 답을 얻지 못한 '눈은 어둡다. 하지만 그 답을 얻기 위해 그녀의 눈은 끈질기다.' 여름 햇살에 그토록 눈부셨던 눈인데도 말이다.

영혜가 던진 "왜, 죽으면 안되는 거야?"라는 질문에 '왜, 죽어도 되는 거야?'라고 되묻고 싶다. 죽어도 되는 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도 되는 건가 말이다. 어떤 식으로든 영혜를 살릴 수 없을까. 우리 모두의 과제이지 싶다. 비존재자의 입장에서 존재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신비의 대상이다. 가슴 아파도, 살아본 적 없는 삶이어도, 우리 인생은 살아가야 할 존재론적 이유가 있는 삶이지 않은가? 죽어도 되는 건가? 목숨, 그렇게 가벼운 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살아야 하는 삶 아닌가.

김한요 칼럼

100%를 넘어 110%



김 한 요 목사
베델교회 담임

저는 이번 여행에서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불가리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큰 도전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가리아의 인상은 마치 복잡한 도시에 있다가 한산한 시골로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오염이 없고, 산이 많고, 길 가다 보이는 식수용 온천물이 계속 인심 좋게 흘러 나오는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곳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유럽의 첫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에서 차로 4시간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불가리아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자녀들(MK)을 위해 최고의 수양회를 준비해서 영적으로 맘껏 고양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님들이 각자 가진 재능에 따라 MK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줍니다. 이번 대회 중 예배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찬양을 맡아서 인도하는데, 드럼, 기타, 베이스, 키보드 등 최고의 실력으로 섬겨주었습니다. 또한 수양회 식사 역시 부모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최고의 귀빈으로 대접하며 음식을 준비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수양회를 하면서 부모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고, 불가리아 현지인들에게 존경받는 한인 선교사들로 당당히 서도록 최고의 공로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대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을 넘어 자녀들을 2대 선교사들로 키우는 모습이 도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척박해진 유럽 대륙을 뒤로 하고, 부산에서 진행되는 한미목회 포럼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자문위원들의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금요 철야가 교회의 생명력을 지켜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영적 흐름은 새벽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뜨거운 영성으로 철야기도와 새벽기도로 생명의 불을 지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큰 도전이 된 것은 전교인이 100% 출석을 목표로 특별 새벽기도를 실시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우리 베델도 '햅시바 1000'을 목표로 외치며 기도에 힘쓴 경험이 있기에 90% 정도 달성했기에 보고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교인 숫자보다 더 많은 110%가 출석하는 특별새벽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100% 출석하는지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아서, 110%가 되었다는 보고에 전 다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디아스포라 교회 110%라는 사명으로 이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징검다리가 돼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전교인이 엘리야 특별새벽기도에 완전 개근을 넘어 110% 하는 날까지, 베델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영적 보고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2024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CPU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과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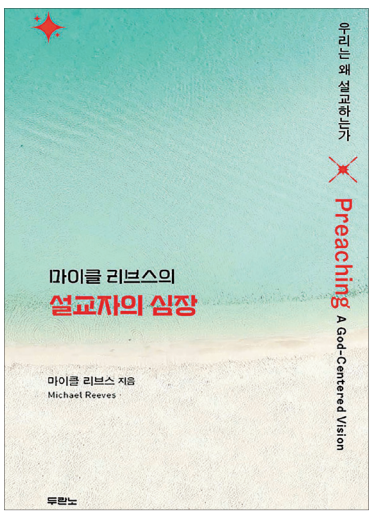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왜 설교하는가

설교자여, 당신의 심장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마이클 리브스의 설교자의 심장

마이클 리브스 | 황재찬 역 | 두란노 | 148쪽 | 12,000원

영국 유니언신학교 총장으로, 신학자이자 한 사람의 설교자인 마이클 리브스가 《설교자의 심장》에서 이 땅의 모든 설교자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 중심적 설교의 비전, 그 핵심을 짚어 준다

짧지만 강렬한 이 책은 현실의 특효약이 될 만한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선명하게 전할 것을 독려한다. 더없이 고결하고 중요한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수고하는 설교자들을 통해 오늘날의 이 짙은 영적 어두움은 걷힐 수 있다!

설교는 목사의 가장 큰 책무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된다. 목회를 막 시작하려는 자에게 선배 목사가 자주 하는 조언이자 경고 중 하나는 "성도들은 목회나 목양을 못하는 목사는 참고 인내하지만,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 절대 참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일 예전을 생각해 보라. 예배로의 초대를 알리는 성경 낭독과 기도, 점점 더 분위기를 고취시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예배자로 한껏 달아오른 청중이 모두 주목하는 강단으로 저벅저벅 걸어올라가는 한 사람에게 얼마나 과중한 부담이 고스란히 주어지는가?

한 편의 설교를 마치고 나면, 항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평가가 시작된다. 설교자 자신도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서 한없이 연약한 상태가 되고, 종종 성도들은 설교가 '길다, 지루하다, 장황하다, 어렵다, 너무 단순하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초보 설교자만 겪는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설교자로 명성이 자자한 목사도 매주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설교하는가?' 이제 더는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국내에 잘 알려진 영국 유니언신학교 총장이자 올소울즈 교회 목사였던(현재는 지역 교회 목사) 마이클 리브스는 148쪽 분량에 B6 사이즈보다 작은 소책자로(112x180mm) 설교자가 어떤 심장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야 하는지 설명했다.

〈설교자의 심장〉으로 번역된 이 책의 원제는 'Preaching: A God-Centered Vision'이다(설교: 하나님 중심적 비전). 이 책은 설교자를 위해 쓴 것으로, 부록에는 각 장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질문들과 조엘 비키, 데이비드 존스턴, 스티븐 로슨 등의 추천사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도 나온다(추천사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었다니. 정말 흥미롭다). 책의 추천사를 쓴 싱크레어 퍼거슨은 이 책 원제에 찬사를 보내며, 이 짧은 책이 삶의 영원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14쪽). 설교의 기술이나 전달을 다룬 책도 많지만, 설교의 기초, 그러니까 설교가 무엇이며 하나님 주권 아래 설교가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설교자에게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이 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15쪽).

퍼거슨의 말처럼 이 책은 설교의 기초 혹은 중심을 다룬다. 그래서 '설교의 심장'이라 번역된 것 같다. 설교는 일반 강연이 아니다. 세상에 강연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강연가는 그것을 주업으로 삼아 전국을 돌아다닌다. 하지만 설교는 단지 청중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퍼포먼스가 아니다. 모여든 사람이 몰랐던 지식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달해 주고 가르쳐 주는 강의 시간도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깨워 생명을 나눠주시는 시간이고, 자기 백성을 영생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시간이다.

저자 리브스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설교하셨기에 우리는 설교한다(28-29쪽)". 설교자가 갖는 부담은 '내가 빛이 되어 비추려는 부담'에서 온다. 모든 청중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부담감. 내가 어떻게 말하고 몸짓과 표정으로 어필하는지에 따라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한다는 부담감.

그러나 설교 현장의 주인공은 설교자가 아니다. 그 현장에서 온 회중을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 부담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만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도구도 좋은 도구와 나쁜 도구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 좋은 도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감격하며 대하는 설교자다. 먼저 자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것이다. 그러면 지식뿐 아니라 합당한 정서와 함께 성도에게 그 하나님을 더욱 잘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다. 마치 맑고 깨끗한 유리가 빛을 더욱 잘 투영시키는 것처럼. 마이클 리브스의 〈설교의 심장〉을 읽으면, 독자는 설교가 절대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점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누가 그 입에 담아낼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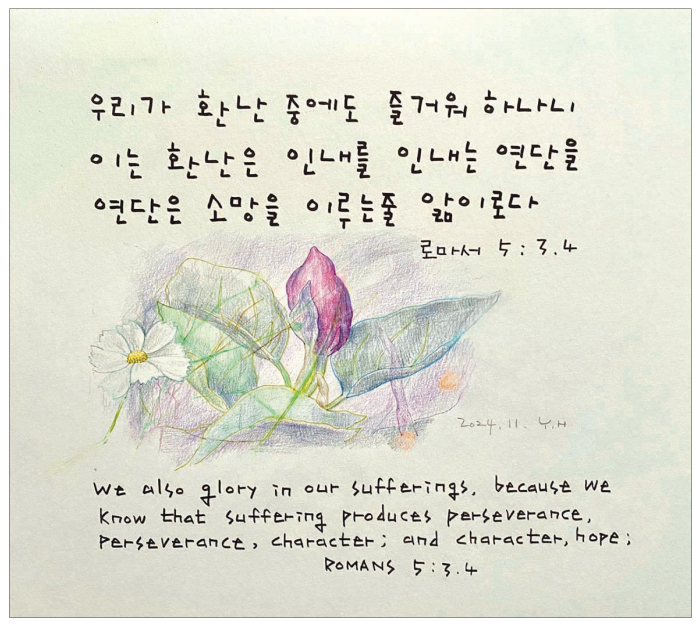
저자 마이클 리브스(Michael Reeves).

하지만 두려워 떠는 이사야의 입에 숯을 댄 하나님은 그를 설교자로 세우셨고,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고 핑계한 모세도 하나님은 누가 벙어리를 지었느냐고 꾸짖으시며 설교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전달 기술의 향상이나 전달할 내용, 즉 지식과 지혜의 함양이 아니다. 설교자가 심장에 담아야 할 것은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지, 질그릇 같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이 고귀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닮은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힘 있게 선포하는 일에 충성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지옥에서 온 판사〉 (3)

〈지옥에서 온 판사〉: 웃음거리 된 교회, 위선 방편 된 회개

작중 권사, 전형적 교회 신자 묘사 방식, 진지함 결여 심각 희화화에만 치우친 점 아쉬워 〈할렐루야〉 이래 반복된 묘사

◈친근한 기독교인: 코미디 소재 취급 받는 기독교인 신앙생활

〈지옥에서 온 판사〉가 최근 국내 드라마 인기 순위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2주 전 시대극 〈정년이〉 방영 전까지 국내 드라마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정년이〉에게 1위 자리를 내준 현재도 굳건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청자들의 평가를 보면 일부 설정상 오류와 극의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코믹함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초월적 힘을 사용해 악랄한 범죄자들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통쾌한 피카레스크적 서사 덕분에 준수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지옥에서 온 판사〉의 줄거리는 불교, 한국 민속신앙, 무속, 로마 신화, 기독교 교리, 유럽 근대 오컬티즘을 혼합한 내세 서사다. 당연하게도 작중 기독교 교리와 세계관으로부터 차용한 설정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설정들의 정확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영적 세계에 대한 여러 이질적 이해 방식을 이리저리 뒤섞어 놓은 터라 당연히 교리적으로도, 그리고 서사 설정상으로도 허점이 많다. 이 작품은 6화까지 교회와 교인들을 우호적으로, 친근하게 묘사한다. 작중 교회 권사로 등장하는 장명숙(김재화 분)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도에 열심을 내고 선의로 사람들을 대하는 전형적인 교회 신자다. 전도 방식이 약간은 강압적이라 주변인들에게 다소간 심적 부담을 주는 모습까지도 전형적이다.

일단 9화까지 장명숙이라는 인물에 대한 친밀감 어린 관점은 변함이 없다. 다만 이 작품이 기독교인 캐릭터와 교회를 묘사하는 방식에는 심각할 정도로 진지함이 결여돼 있다. 이는 장명숙의 약간은 가벼워 보이는 언행들을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교회 예배 장면에서 졸개 악마 구만도(김인권 분)가 목회자의 "사단아 물러가라"(마 4:10)는 봉독 말씀에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위해 선의로 타인을 대한다는 점, 그리고 교회가 마귀와 그 수하들에게 특별한 영적 권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묘사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유감이 없다. 그러나 그 연출 방식이 지나치게 희화화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이는 영화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 국내 대중문화계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된 잘못된 기독교인 묘사 방식 가운데 하나다. 작중 신앙에 열심을 가진 기독교인을 코미디 캐릭터로 일반화하는 묘사, 그리고 교회가 영적 권능을 발휘하는 방식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슬랩스틱(과장된 동작과 신체적 표현을 동원하는 코미디 기법)은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는 것을 넘어, 기독교 신앙을 시답지 않은 믿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기독교 신앙은 성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들의 모습에 의거해 농담, 기롱하는 말, 그리고 실없는 유머나 코미디를 지양한다.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서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주변인들에게 온유하고 신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할 때, 이것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유머러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오해하는 일이 많아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오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 드라마 각본가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위선적인 기독교인: 〈밀양〉, 〈더 글로리〉, 그리고 〈지옥에서 온 판사〉까지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온 판사〉는 교회와 기독교인 희화화에 못지 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심각한 기독교 구원 교리에 대한 오해를 보여준다. 이는 8화에 등장하는 악인의 대사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지옥에서 온 판사〉는 이 대목에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속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전형을 재현한다.

영화 〈밀양〉 이래 한국 대중문화계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묘사된 파렴치한 기독교인의 전형이 8화에 등장하는데, 특권의식에 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학적 성격까지 가진 살인자 CEO 최원중(오의식 분)이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다. 최원중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혹한 노동 환경을 방치해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산업재해로 죽도록 내버려 둔 악덕 기업가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노조위원장 원창선(강신일 분)을 폭행하고 살해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스스로를 모범적인 기업인이자 기독교인으로 여긴다.

작중 최원중은 노조위원장을 폭행하고 살해한 일로 재판에 회부된 다음, 검찰과 법원에 청탁을 넣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풀려난 직후 그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의 대사는 세간에서 바라보는 위선적 기독교인의 전형이다.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제 편이 되시고 늘 저와 함께 하시어 남들보다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 축복된 삶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최원중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가증한 기독교인에 대한 분노를 자아낸다. 특권의식에 찌들었을 뿐 아니라 가학적 성격까지 가진 살인자 CEO 최원중(오의식 분)은 영화 〈밀양〉 이래 한국 대중문화계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묘사된, 파렴치한 기독교인의 전형이다.



인간세계로 잠시 추방된 지옥의 재판관이자 악마 유스티티아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또 주인공 강빛나 판사(박신혜 분)가 최원중에게 지옥 형벌을 내리러 온 장면에서 최원중이 내뱉는 말 또한 참담하다. 강빛나가 최원중에게 "사람 죽인 거 반성은 하니? 용서는 받았고?"라고 묻자 그는 "제가 교회 가서 회개했고요, 교회 가서 '죄송합니다' (기도했어요). 주님께 용서받았어요"라고 답한다. 이에 강빛나는 "그거 말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용서받았냐고?"라고 묻자 최원중은 "예? 저는 이미 신께 구원받았는데요?"라고 대답한다. 기독교 신앙을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 구원의 특권으로 여기는 이런 비틀린 신념은 영화 〈밀양〉에서 충격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바 있고, 그 뒤로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묘사됐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께'만'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죄책과 책임은 철저히 부정하는 이런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은 극단적 칼빈주의(hyper-Calvinism)의 대표적 양태로 볼 수 있다. 극단적 칼빈주의란 18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칼빈 신학의 한 지류로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던 일련의 신학자들의 주장이다.

존 스켑(John Skepp), 존 브라인(John Brine), 존 길(John Gill) 등에 의해 주창된 이 이론은 칼빈의 이중예정설을 강화하여 구원과 유기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내세운다. 이 이론이 확장되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행, 그리고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마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결정돼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신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부정과 불법적 행위, 그리고 범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극단적 칼빈주의는 칼빈의 이중예정설을 강화하여 구원과 유기에 있어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내세운다. 작중 최원중은 이 잘못된 신학사상을 따르는 이들의 행동방식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극단적 칼빈주의는 18세기 내내 영국 기독교계에 궤멸적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이들이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등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일은 비록 그 정도나 빈도는 덜할지 몰라도, 거의 같은 양상으로 한국교회에서 재현되고 있다.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도 한국교회의 이 어긋난 구원이해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단언하건대 타인에게 범죄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절박한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책임은 성경에서도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눅 17:4)".

이 가르침은 논리적 형식을 따질 때 명백한 조건문이다. 전건(antecedent)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이며 후건(consequent)은 "너는 용서하라"다. 전건이 긍정되어야, 즉 전건이 참이어야 후건도 긍정된다. 여기서 "내가 회개하노라"라는 말의 엄중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통큰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부목사 청빙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장로 교회는 KAPC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실 풀타임 부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http://www.oc1church.com/)
지원자격
1.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M.div 소지자)
2. 팀 사역에 적합한 분
3. 미국에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4. 이중언어 가능자 선호
사역내용 1. 전임 - 한어 장년 목장 사역 담당
준비서류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1. 이력서 (가족관계 및 사진 첨부)
2. 자기 소개서 및 신앙고백서 (가족 소개 및 소명, 은사와 목회 경험 상세히 기록)
3. 최근 1년 이내 설교 2편 (음성 또는 영상 링크)
청빙절차
1. 1차 서류 전형 (통과하신 분에 한해 추천인 2명의 전화번호/이메일 제출하시면 면접 전에 교회에서 직접 연락하여 교회의 구글폼에 맞춰 추천서를 받습니다)
2. 2차 화상 면접 및 필요시 청빙설교
기 타
1. 사례 : 교회 내규에 따라
2. 제출 : 청빙위원회 (fpcocwelcome@gmail.com)
3. 기한 : 2024년 11월 30일(토)까지
4.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5.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oc1 church
OC1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신앙 때문에’ 각각 트럼프와 해리스에게 투표한 美 유권자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번 대선에서 각자의 신앙을 바탕으로 각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한 미국인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재세례파 신앙 공동체인 브레드렌빌리지의 스티븐 쉔크(Stephen Shenk)는 트럼프 지지자다. 쉔크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과 경제 이슈다. 2016년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국경이 훨씬 더 안전했고, 경제도 더 나은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인데, 지난 4년 동안 집을 사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복음주의 계열인 빅토리교회에 출석하는 쉔크는 “신앙이 분명 투표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며 “저의 도덕성은 도널드 트럼프의 많은 정책과 공화당 전체의 도덕성과 일치한다”고 했다.

반면 존 바이어스(John Byers)는 “해리스에게 투표했다.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했지만, 올해는 트럼프가 너무 멀리 갔다”며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그 이후부터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바이어스는 브레드렌교회에 일원으로서 연방정부와 협력해 난민 재정착을 돕는 신앙 기반 단체 6개 중 하나인 ‘처치월드서비스’(Church World Service)를 통해 난민들이 이 지역에 재정착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 경험으로 트럼프의 대량 추방 계획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된 그는 “나는 사람들을 이 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추방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선거운동 마지막 날 신앙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는 최근 랭커스터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지지해 온 유권자층인 복음주의자들에 초점을 맞췄고, 해리스는 흑인 개신교인과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 교인 등 다양한 종교인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브레드렌빌리지 유권자인 로다 마스트(Rhoda Mast)는 트럼프의 인격 때문에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투표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난 메노나이트(재세례파) 신앙인으로서, 정기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보를 지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신앙인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친절하며 정직해야 하고, 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이애나(Diana)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초교파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트럼프가 “성경적 신념과 기독교적 신념”을 더 많이 대변한다고 말했다.

그녀와 함께한 의료 종사자이자 재향군인인 닐 윌슨(Neil Wilson)은 “2020년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해리스를 위해 투표했다”고 했다. 목사를 삼촌으로 둔 침례교 가정에서 자란 그는 “난 그녀가 대표하는 것, 즉 사람들, 중산층을 좋아하고, 이를 통해 투표의 영감을 얻었다”면서 “내게 있어서 신앙은 변화를 위한 노력에 영감을 줬고, 투표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가톨릭교인 케이티 파식(Katie Pasic)은 낙태가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낙태권 보호를 선거운동의 초점으로 삼은 해리스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낙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불가지론자인 남편도 해리스에게 투표했다. 제가 모든 가톨릭교인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낙태 반대자면서도 낙태 찬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미국의 가톨릭교인 대부분은 모든 또는 대부분의 경우 낙태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믿는다.

최근 필라델피아에서 랭커스터 카운티로 이사한 제나와 알렉스 모이어(Jenna and Alex Moyer) 부부는 초교파 교회에 다니고 있다. 알렉스 모이어는 “유대-기독교 윤리가 우리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지 후보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제나 모이어 역시 “우리는 나라가 우리의 가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랄 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좋은 도덕성과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이 깊이 분열돼 있다는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나 모이어는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으로 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했다.

신앙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로이스 스타우트(Royce Stout)는 “안전한 국경을 원하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면서, 신앙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자 한마디로 “아니”라고 답했다. 강혜진 기자

한샘교회 창립 7주년, “마음을 녹이고 문제를 녹이는 교회”

지난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샘교회(담임 이순환 목사)가 창립 7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이순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손성일 목사(협동목사)가 기도하고, 교회 소식, 교제와 축복에 이어, 이순환 목사가 “마음을 녹이고, 문제를 녹이고”(삼상 19:18-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욧에 간 사울과 그의 사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한샘교회가 라마 나욧처럼 “갈등과 증오를 녹이고, 문제를 녹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한샘교회(담임 이순환 목사)가 창립 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설교를 시작하며, 그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의 상대를 올바르게 분별하라고 조언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갈등에 휩싸일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과 나의 갈등 속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점이다. 이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탄을 미워해야 한다. 내가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갈등의 중심에는 사탄이 자리잡고 있다. 상대를 잘 고르라. 엉뚱한 상대를 고르지 말라.”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욧에 간다. 그를 잡으러간 사울의 사자들이 다윗을 붙잡을 생각은 고사하고 선지자 무리들과 예언을 하게 된다.”

이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 옷을 벗고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에 대해, “저는 이렇게 사울이 변하고 사울의 사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며 ‘교회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며, “살기에 넘쳤던 사울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교회가 이정도는 되어야 한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용광로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곳이다. 그것을 다 걸러내야 본래의 가치를 찾게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가 7주년을 맞는 의미에 대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라마 나욧처럼 성령의 용광로가 되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마음을 녹이는 교회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늘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한다. 라마 나욧에는 사무엘이 있고 선지자 교육을 받는 이들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받는 이들을 보며 사울의 군사들도 덩달아 예언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사울의 부하들이 과연 몇 명이나 성령의 체험을 기대했을까? 그들은 성령을 소원하지도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들어가니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사울 조차도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고 예언을 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비결은 하나 밖에 없다. 사무엘과 함께 하는 선지자 그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다윗을 향한 불같은 질투를 갖고 있던 사울이 라마 나욧에 들어가자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 그 모든 질투와 증오가 녹았다.”

그는 힘든 이민생활로 강퍅해진 이민자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교회가 LA에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히면 정신, 육체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까? 강력한 기도의 진으로 만들어 놓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A에 이런 교회가 꼭 필요하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 상처받고 강퍅해진 마음을 녹여야 하는 게 교회이다.”

두번째로, 이순환 목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녹여내는, 안전한 요새,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는 사람들의 문제를 녹여내는 안전한 요새가 되어야 한다. 사탄의 공격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의 진으로 들어와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 문제 있을 때 언제든 찾아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한샘교회가 우리 안에 견고한 기도의 진으로 형성할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 사람을 녹이고 문제를 녹이는 라마 나욧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 주디 한 기자



Loving Worship Healing Music Talk Concert

BELOVED











출연진

새롭게 하소서 MC
주영훈, 박요한, 송지은
—
러빙워십
Joseph Lee 목사
—
사랑과 평화 기타 &
싱어송 라이터 조범진

스페셜 밴드 & 게스트 싱어

총괄 프로듀서
Troy Choi

Ticket 문의

$30 | $40 | $50
—
213.357.1565
—
La Mirada Theatre
Box Office

lamiradatheatre.com

주소

La Mirada Theatre
14900 La Mirada Blvd

금 | FRIDAY
12.13 — 8PM

토 | SATURDAY
12.14 — 7PM

협력 교회
나성영락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베델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충현선교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토
렌스 조은교회
LA동부사랑의교회LA
온누리교회

협력 단체
기독일보
KBS America
YTV America
Soon Movement Global

주최 & 주관
Loving Worship